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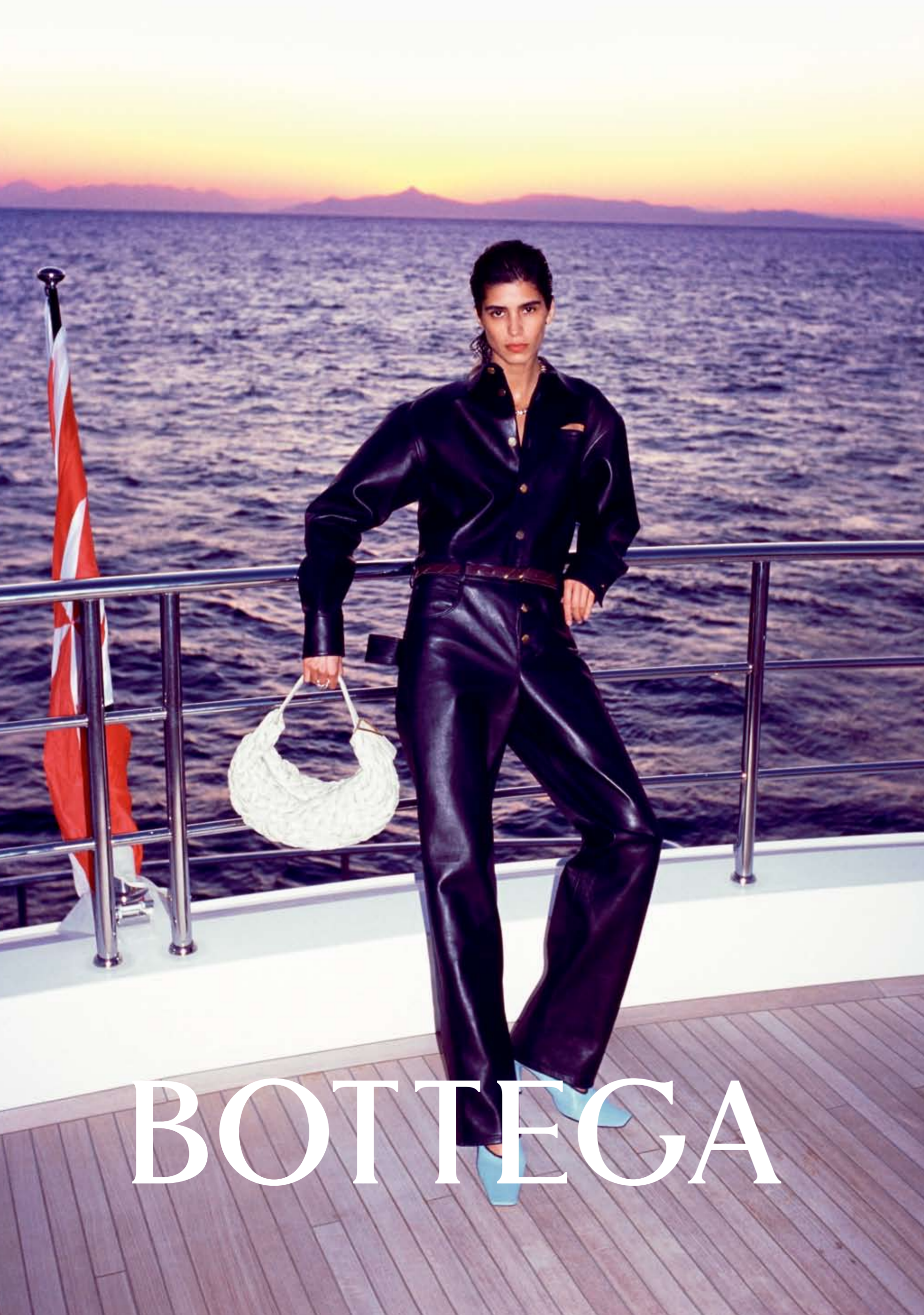
Style

조선일보

APRIL 2020
vol.203



CLASH DE *Cartier*



BOTTEGA



BOTTEGAVENETA.COM

VENETA

RALPH LAUREN



SUBLIMAGE
LA COLLECTION LUMIÈ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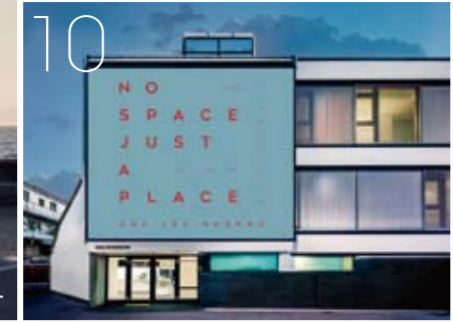
수블리마지 루미에르 컬렉션

피부 속까지 빛으로 채워주는 광채를 선사합니다

신제품 수블리마지 루미에르 컬렉션에는 식물계의 보석 같은 성분, 안틸리스와 바닐라 플래니폴리아가 함유되어 피부를 화사하게 밝혀 톤이 고르게 정돈되고 생기가 되살아납니다. 순수한 광채로 환하게 빛나는 피부를 경험해 보세요.



CHANEL



Style 조선일보 Issue.203 April 2020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정희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이혜미 hmlee0909@chosun.com
 이주이 juyi.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정희 ih5567@chosun.com 분해 - 재판 | 라온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나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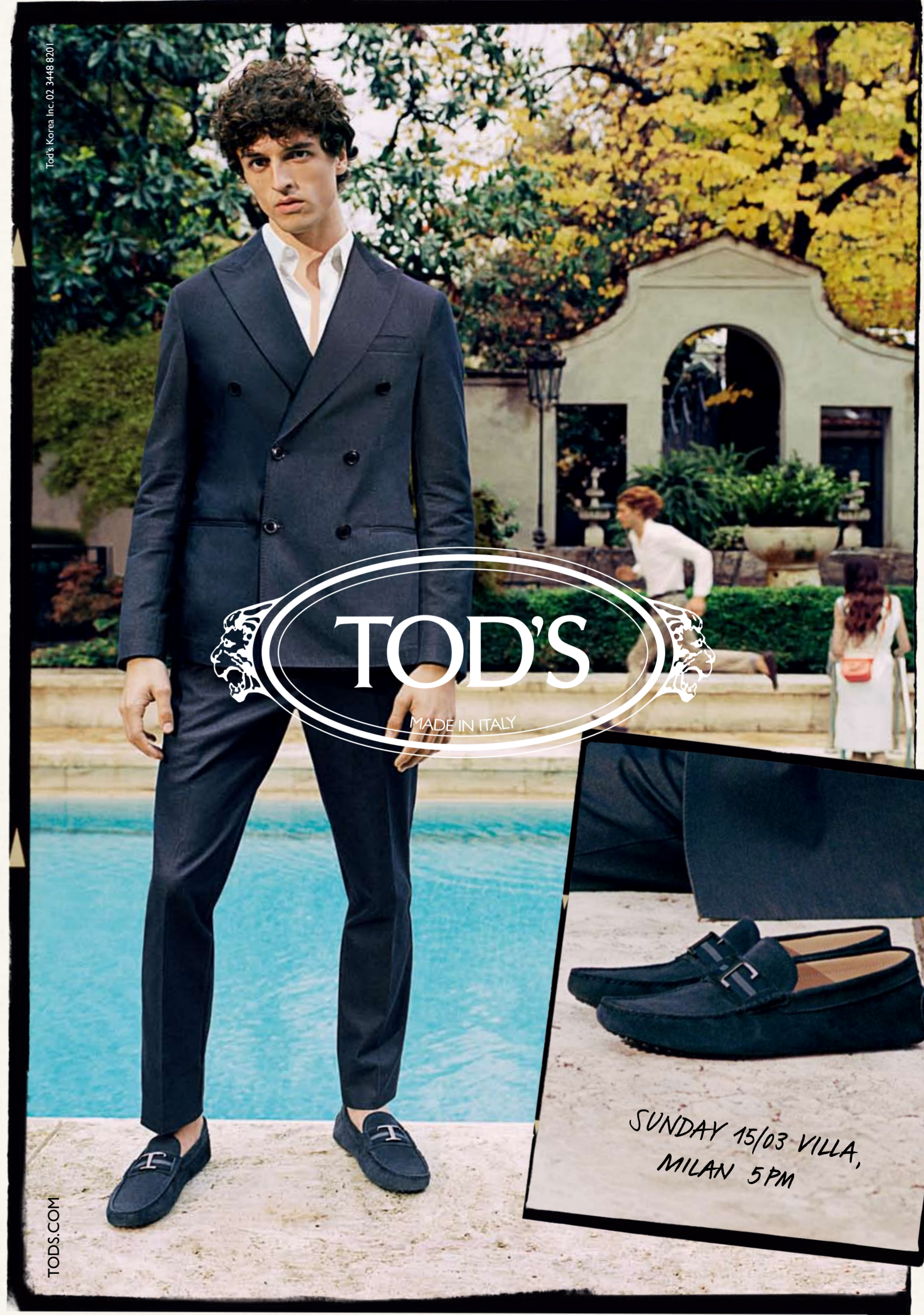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일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 12 **SELECTION**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공간에 활력을 더해줄 근사한 오브제.
- 14 **THE RUN MUST GO ON** 자구전을 강타한 '코로나 19' 바이러스 위기 탓에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심지어 나이팅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자동차업계라고 예외는 아니지만 '신차'를 내세운 브랜드들의 타겟이 눈에 띈다. 신차 발표회나 각종 홍보, 프로모션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구매를 활성화하는 방식의 비대면 마케팅이 활발한 가운데, 매력적인 '뉴 페이스'들이 잇따라 공개되고 있다. 자동차업계로서는 신차 캘리브라 난관을 극복한다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도도록 대면을 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줄 '차(차기 소유 차량)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측면이 있다. 게다가 유럽발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감안할 때 '차(차) 시야 할 품목'이라면 구매하기 꺼려지지 않는 시가라는 계산도 나올 법하다. 특히 타겟 고객층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견고한 하이엔드 브랜드들의 질주는 여전히 진행 중인 듯하다.
- 16 **THIS IS IT** 유수의 워치메이커가 선보이는 훌륭한 기능과 디자인, 전문성을 겸비한 시계를 구입하기 위해 자물해야 하는 대가가 부담스러웠다면 지금 소개하는 제품들을 만나볼 것. 신인생, 신인 사원, 시계 입문자, 그 밖에 합리적인 소비를 자처하는 이들에게 추천하는 착한 시계 리스트.
- 17 **SPRING BLOSSOM** 산들바람에 춤추는 꽃처럼 일체적이고 섬세한 디자인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골드와 매혹적인 색채에 생명을 불어넣는 미러 폴리싱 기법을 사용한 프라볼 컬렉션은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반짝이는 깊은 빛을 느낄 수 있다.
- 18 **DAY BY DAY** 하나만 착용해도 존재감이 확실한,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무장한 데일리 주얼리 컬렉션.
- 19 **BRAND NEW ATTITUDE** 누구보다 열정적인 모습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여성을 위해 탄생한 컨템퍼러리 패션 브랜드 조이그리이스이 2020 S/S 시즌 한층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온다.
- 20 **2020 S/S TREND REPORT**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전드리스가 트렌드의 중심에 있었다. 마초와 사랑을 넘나들며 다양한 스타일을 취했고, 신경 쓰지 않은 듯 여유로운 테일모링이 두각을 드러냈다. 그리고 스트리트적 요소가 하이패션 신을 젊은 에너지를 채웠다. 남성을 위한 2020 S/S 트렌드 8.
- 22 **ETERNAL COOL** 깊은 눈빛과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 '슬기'로움을 평범의 덕으로 정의한 단단한 배우 정경호의 패션 토크.
- 30 **EDITOR'S PICK** 건강한 식습관과 충분한 숙면, 여기에 곱들인 스킨케어로 마무리하는 4월의 뷰티.



TOD'S

MADE IN ITALY



SUNDAY 15/03 VILLA,
MILAN 5PM

TODS.COM



포토그래피 박승민

Jewel SEDUCTIVE MOVES

움직임에 따라 우아한 울동감과 광채를 더하는 매혹적인 폰폰 & 테슬 장식 주얼리.

(왼쪽부터) 깊게 늘어뜨린 테슬 디테일, 플라워 모티브, 체인 곳곳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사하게 빛나는 피오레버 화이트 골드 네크리스 3천9백만원대 **블가리**,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오파크로 장식한 펜다가 비즈 수슬 장식을 입에 물고 있는 형태의 펜다가 카르띠에 화이트 골드 링 가격 **미정** **카르띠에**, 실크 페브릭처럼 부드럽고 섬세한 텍스처를 구현한 핑크 골드 쇼세 폰폰, 체인이 돋보이는 폰폰 펜던트 네크리스, 총 5.21캐럿에 달하는 1백88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가격 미정 **부세렌**, 고무의 로즈 모티브 아래 다이아몬드 체인을 더해 장미 꽃잎에서 열어나는 물방울을 형상화한 피아제 로즈 아워링 가격 미정 **피아제**, 에디터 **이혜미**



포토그래피 박승민

Fashion SWEET SOUND

패션을 입은 에어팟 케이스.

(위부터) 견고한 사파이는 가죽으로 완성한 에어팟 케이스, 탈착 가능한 스트랩으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 50만원대 **프라다**, 앙증맞은 고양이 모티브 키우 하이드 가죽 케이스 60만원대 **루이비통**, 고무의 인크레디블트 기법을 적용한 앙가주 케이스 57만원 **보테가 벤테타**, 마티네제 가죽 특유의 섬세함이 돋보이는 에어팟 케이스 40만원대 **미우미우**, 모던한 외관이 특장인 송아지 가죽 모노그램 에어팟 케이스 30만원대 **생로랑**, 에디터 **이주이**



포토그래피 박승민

Beauty GLOSSY LIPS

땡글땡글 유리아갈 입술이 대세! 립 오일 vs 립글로스, 당신의 선택은?

(위부터) **클라랑스 인스턴트 라이트 립 컴포트 오일 #08 블랙베리** 진정 효과를 갖춘 미라벨 지두, 재생에 도움을 주는 하이알루산, 보습력이 우수한 오가닉 호호바 오일 등 세 가지 오일 성분을 담아 풍부한 영양감을 자랑한다. 블랙베리 컬러로 은은하면서도 관능적인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다. 7ml 2만8천원. **디올 아디트 립 글로우 #007 리즈베리** 입술 톤에 어울리는 틴티드 효과로 맞춤형 생기를 선사해 모든 피부 톤에 잘 어울린다. 체리 오일 성분이 입술을 매끄럽고 도톰해 보이도록 해준다. 6ml 4만4천원대. **사벨 루주 알부르 인크 #148 리베레** 약 8시간의 지속력을 자랑하는 아이템. 입술에 가볍게 스며드는 부드러운 실크 텍스처가 특징으로, 섬세하면서도 우수한 발색력을 갖췄다. 6ml 4만6천원. **랑콤 입술워 에-젤 리커 #315** 마치 에센스를 바른 듯 촉촉하게 마무리하는 텍스처가 매력적이다. 얇고 부드러운 애플리케이션으로 정교한 입술 표현이 가능하며, 여러 번 덧바르면 컬러와 광택이 강렬해져 매혹적인 입술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다. 8ml 4만8천원대. **데코르테 립 오일 #03 렉키 카멜리아** 아이라비안 재스민 꽃, 포도씨 오일 추출물 등 여섯 가지 식물성 오일을 함유했으며, 물보다 가벼운 오일 형태의 스텔란 성분으로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마무리된다. 자연스러운 핑색과 윤기를 부여해 데일리 뷰티 아이템으로 적합하다. 4.7ml 3만2천원. 에디터 **이주이**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Focus 미래의 혁신가를 키운다, '제임스 다이슨 어워드 2020' 공모

먼저 봉투 없는 진공청소기, 날개 없는 선풍기, 소음 적은 헤어드라이머 등 상식을 뒤집은 혁신과 고유한 디자인 마하으로 유명한 영국 브랜드 다이슨. 창업자 제임스 다이슨을 살아 있는 신화의 주인공으로 이끈 첫 저명한 먼지 봉투 없는 진공청소기의 경우 5년에 걸쳐 무려 5천1백27개의 시제품을 만든 뒤에야 개발에 성공했다는 일화는 꽤 유명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실패와 실수를 통해 배우는 기쁨'을 적극 장려하는 기업 문화를 지닌 다이슨은 2004년부터 엔지니어링과 디자인을 공부하는 전 세계 젊은이들이 도전할 수 있는 제임스 다이슨 어워드를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는 한국을 포함해 영국, 미국, 독일, 호주 등 27개국을 아우르는 이 국제 공모전은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 아이디어에 높은 점수를 주는 평가 기준에 따라,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부터 에너지 생산,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의료적 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를 지지해왔다. 올해는 '기술 가능성' 부문이 새롭게 추가됐다. 자체 국제전 우승작 '마리나텍스(MarinaTex)'는 해양 폐기물과 재생 가능한 원재료를 재처리한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해양 오염 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명을 받았다. 국내전 우승작으로는 키아스트 산업디자인학과 학생들의 응모작으로 종이 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면지를 포스트잇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명품 '리유즈잇(Reuse-It)'이 선정됐다. 공모전은 최근 4년 이내 최소 한 학기 이상 엔지니어링·디자인 강의를 수강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는 7월 16일 오후 5시까지 홈페이지(www.jamesdysonaward.org/ko-KR)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국제전 우승작, 지속 가능성 부문 최종 우승작, 국제전 우승 후보작(2팀)과 국내전 우승작 수상자는 상금을 받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차세대 엔지니어·디자이너로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거나 투자를 모색하는 등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에디터 **고성연**



Exhibition (이공간, 그 장소 : 헤테로토피아) 전시를 개최하는 구찌



의 정체성과 귀여운 문화를 탐색할 수 있는 유토피아적인 장소로서 대안 공간이라는 테마와 연결될 예정이다. 전시는 7월 12일까지, 에디터 **장려은**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구찌가 서울의 다양한 문화 공간과 현대미술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 17일 대림미술관에서 (이공간, 그 장소 : 헤테로토피아) No Space, Just a Place, Eterotopia) 전시를 오픈한다. 이 전시에서는 다른 공간(Other space)을 개인이 타인 혹은 주변 환경과 관계를 맺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 비평적인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장소라고 정의한다. 전시의 핵심 주제는 장르와 생활의 관계에 대한 윤리적이고 미학적인 가치, 학습 경관(Learnscapes)의 개념, 자기표현의 긴급성, 영원한 인류학적 매-페이스트 등이다. 한 명 또는 여러 아티스트의 작품으로 독립 예술 공간을 구성하는 각각의 팀이 큐레이터와 함께 고안한 프로젝트도 선보인다. 모든 프로젝트는 다음을 이해하면서 소수자의

FERRAGAMO.COM



Salvatore Ferragamo



원도 리본은 자느리 자모로 제작한 미스틱 캣프린트 에쉬 트레이 32만원 구찌 데코.

오직 파파와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생 로랑 리본 드와 매정해찬 구찌가 생산 메를 양행 가격 미정 생 로랑 by 안토니 바게로.

타파니 에브리데이 오브제트 레드 앤 화이트 테이블 패스 패들 가격 미정 타파니.

부드러운 셀라리아 가죽을 견고한 금속 재질로 구현했다. 쿠잉 카바토와 합판에 상반인 로만 볼드 칼텍신 가격 미정 안토니 바게사.

왕자와 산자제도 불꽃을 정음해 잇사로운 왕자로, 이몬트, 불카 빈이 어우러진 스카이스톤 8000 특장인 오렌스 홀 캔들 4개를 1세트 200,000원만 조립을 한다.

Selection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공간에 활력을 더해줄 근사한 오브제.

태양광 LED를 적용해 장시간 사용해도 눈의 피로감과 부담이 적은 발류다 더라이트 49만원 원 발류다.

목재에 가죽 디테일로 포인트를 준 인버트 피기 뱅크 1백41만원 루이 비롱.

두껍고 견고한 4개의 다리와 그릇 형태 좌석이 독특한 물리 물리 체어 98만원 샵터원.

6단계 굵기 다이얼과 재가열, 해동, 방 한쪽 면만 굽기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아이코나 반트지 토스터 19만원 드롱기.

미르셀 반드르스가 디자인한 99개 한정 바로크풍 뉴 엔틱 베이스 7천만원대 바카라.

상부 및 후 손잡이 부분에 천연 나무를 사용하며, 150ml, 800원 샵터원.

크로카티원 텍스처 가죽 케이스가 맞스로운 앤드 플레인 카드 세트 30만원대 000원 by 매사스패션.

이층 1800-1987 발류다 02-710-4100 조 말론 런던 02-3440-2750
 구찌 데코 02-3452-1921 생 로랑 by 안토니 바게로 02-549-5741 타파니 02-547-9488
 렌디까사 02-2056-9023 에르메스 02-542-6622 달타르 02-3479-6049 루이 비롱 02-3432-1854
 바카라 02-3479-1812 샵터원 070-8881-8006 드롱기 080-488-7711 매사스패션 080-822-0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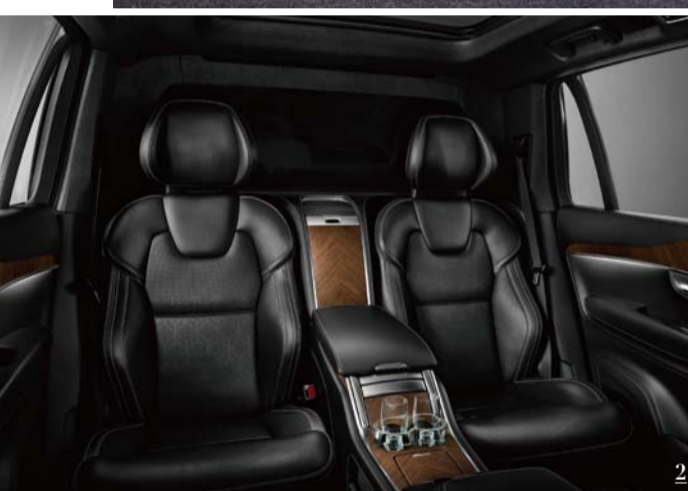
joygryson.co.kr / Instagram : @joygryson_official



JOY GRYSON

조이그라이슨 신세계 강남점 GRAND OPENING
 신관 5F / 02 2150 2494

the run must go on



지구촌을 강타한 '코로나 19' 바이러스 위기 탓에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쉽사리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자동차업계라고 예외는 아니지만 '신차'를 내세운 브랜드들의 타개책이 눈에 띈다. 신차 발표회나 각종 홍보, 프로모션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구매를 활성화하는 방식의 비대면 마케팅이 활발한 가운데, 매혹적인 '뉴 페이스'들이 잇따라 공개되고 있다. 자동차업계로서는 신차 랠리로 난관을 극복한다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라도 되도록 대면을 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줄 '차차(차기 소유 차량)'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측면이 있다. 게다가 유렵발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감안할 때 '어차피 사야 할 품목'이라면 구매하기에 나쁘지 않은 시기라는 계산도 나올 법하다. 특히 타깃 고객층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견고한 하이엔드 브랜드들의 질주는 여전히 '진행 중'인 듯하다.

기계 미학을 향한 인류의 열망으로 끝없는 진화가 이어져온 자동차 세상. 이 역동적인 생태계에서 수년째 꺼지지 않는 불꽃은 단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이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가성비(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 등의 키워드로 점철된 오늘날의 '레저 경제'에서 편하면서도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SUV의 인기는 점점 더 높아져가는 추세다. 그러다 보니 소형, 중형, 대형을 가리지 않고 자동차 브랜드들이 자사의 개성과 장점을 알세운 SUV를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람보르기니, 벤츠, 롤스로이스, 마세라티 등 세단을 고집하던 슈퍼 럭셔리 브랜드들도 SUV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국내 고급차 시장에서도 어느덧 SUV 모델 수가 세단 수를 앞서는 상황에 이르렀다. 좀처럼 사들이지 않는 SUV 리베상스는 올해도 이어질 듯하다. 실용적이며 현대적 감성을 놓치지 않는 콤팩트 스타일의 프리미엄 자동차도 여전히 수요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차체는 작더라도 내실 있고 똑똑해 보이는 브랜드의 콤팩트 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현상은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의 맥을 같이한다. 예가치 않은 외부 변수가 아무리 심술궂게 불기자더라도 하이엔드 자동차 브랜드들의 진화 자체는 계속되고 있지 않은가.

여전한 SUV 전성시대, '실속'에 '감성' 없어야 최근 수년 사이 심상치 않은 성장세를 탄 브랜드 불보는 SUV 라인업으로도 독특한 인기 를 누리고 있다. 도심형 프리미엄 SUV를 표방하는 'XC60'을 비롯해 콤팩트 SUV 모델 'XC40', 그리고 덩치가 가장 큰 모델로 대형 SUV 중 잔존 가치 1위로 평가받기도 한 'XC90' 등으로 구성을 갖춘 불보의 SUV 제품군이 꾸준한 반응을 얻고 있는 추세다. '안전성'이라는 프리미엄을 오랫동안 누려온 이 스웨덴 브랜드는 한때 노후한 이미지로 쇠퇴할 뻔했지만, 젊은 층에 통할 만한 감각적인 디자인을 과하지 않게 가미하면서 생기를 띠기 시작했다. 국내 시장에서도 지난해 처음으로 판매 대수 1만 대를 넘어서는 좋은 성적을 내면서 몇 년째 순항 중이다. 올해는 한층 고급스러운 라인업과 탄탄한 서비스로 상승세를 굳힌다는 전략이다. 작년 말에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XC90 T8 '엑셀런스' 같은 경우에는 마사지 기능을 비롯해 2열 냉방기에 크리스털 샴페인 잔 등 럭셔리 옵션까지 추가된 모델이다. 올 초 국내 SUV 시장에서는 제네시스와 아스텐마틴이 단연 화제가 됐다. 제네시스는 브랜드 최초의 SUV를 공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고, 영국 스포츠카 브랜드 아스텐마틴 역시 1백6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고성능 SUV 모델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 수밖에 없었다. 현대차



그럼에서 아침 차게 내놓은 대형 SUV '제네시스 GV80'은 놀랄 정도로 다양한 옵션, 세련된 색상, 3열의 덩치에도 쿠파처럼 날렵하게 떨어지는 루프 라인 등으로 호평을 얻어 일단 합격점을 받았다. 배일을 벗기까지 여러모로 궁극증을 유발했던 아스텐마틴 최초의 SUV 'DBX'는 특유의 장인 정신이 깃든 럭셔리함이 돋보인다. 이 5인승 SUV는 최신 버전의 4. 트윈 터보 V8 엔진을 장착해 스포츠카 브랜드다운 역동성을 갖추었지만 풍요로움이 배어 있는 수작업 가죽 시트(라든지 금속·유리·나무 등 적재적소에 걸맞은 다양한 고급 소재를 적용한 '디테일의 미학'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아스텐마틴 관계자는 "여성 고객에게 신경을 많이 쓴 가죽 친화형 SUV로 세심하게 디자인해 반려동물 패킹징 등도 포함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 상반기를 겨냥해 선보이는 '아메리칸 럭셔리'의 상징 같은 대형 SUV 모델들도 눈길을 끈다. '캐딜락 XT6'와 링컨 울 뉴-에비에이터(All-New Aviator)다. 먼저 캐딜락의 새 SUV는 출중한 메시 형태의 콕핏 프론트 그릴을 중심으로 양옆으로 뻗은 날렵한 헤드램프가 강인하면서도 품위 있는 이미지를 자아낸다. 링컨 울 뉴-에비에이터는 이름이 암시하듯 '고요한 비행'을 추구하는 아상적이다. 비행기 날개를 연상시키는 테일 램프를 반영해 우아하고도 역동적인 디자인이 돋보인다. 강력한 트윈 터보 차저 3.0L V6 엔진을 탑재하고 운전자 보조 기능인 코-파일럿 360 플러스(Co-Pilot 360 Plus)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녹아 있다. 올해 반격을 노리는 독일 브랜드 아우디는 이번 상반기 중 소형 SUV 'Q2'와 중형 SUV인 'Q5' 등을 통해 SUV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는 한편, 올 하반기에는 브랜드 최초의 양산형 SUV 전가차인 '아우디 e-트론'을 공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펼칠 예정이다. 전가차 시대의 바람직한 기준이 될 만한 디자인

언어를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담은 e-트론은 아우디의 인공지능 음성인식 서비스인 '알렉사'를 탑재하는 등 여러모로 편의성을 높였다. 그랜드 세단은 세단! 쿠파형 모델도 주목 아우디의 움직임은 세단 영역에서도 두드러진다. 세단 특유의 인력함, 역동적인 주행 성능, 그리고 맵시 있는 디자인을 두루 갖춘 쿠파형 세단 'A7' 시리즈가 대표 주자.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A7 시리즈 모델인 '더 뉴 아우디 A7 55 TFSI 콰트로'는 '멋도 내고 '성능'도 누릴 수 있다'는 4-도어 쿠파형 세단. 3.0L V6 가솔린 직분사 터보 차저(TFSI) 엔진과 7단 S 트로닉 변속기를 장착해 강력한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발휘할 뿐 아니라 레이저 라이트와 다이내믹 턴 시그널을 포함한 HD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 등 편의와 안전을 위한 사양도 두루 갖췄다. BMW도 4-도어 쿠파형 세단을 내놓는다. 먼저 뉴 2 시리즈 그란쿠파는 BMW 콤팩트 세그먼트에서 처음 선보이는 4-도어 쿠파다. 유려하고 경쾌한 디자인에 실용성을 가미한 콤팩트 4-도어 쿠파인 '뉴 220d 그란쿠파' 모델이 최근 나왔다. 역시 4-도어 쿠파로 고성능 럭셔리 스포츠카인 '뉴 M8 그란쿠파 컴퍼티션'도 사전 예약을 진행 중이다. 최고 출력 6백25마력, 최대 토크 76.5kg·m의 힘을 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데 3.2초가 소요된다는, BMW 4-도어 쿠파 모델 중 강력한 주행 성능을 자랑하는 모델이다. 외관상의 맵시와 주행의 재미를 까다롭게 따지는 자동차



1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엔진 T8을 장착한 불보의 SUV 'XC90 T8 '엑셀런스' 모델. 지난 해 말 선보인 이 모델에는 뒷좌석 접이식 테이블, 수중에 크리스털 샴페인 잔과 컵홀더 등 각종 럭셔리 사양을 적용했다. 2 불보 XC90 T8 '엑셀런스' 내부에 설치된 마사지 시트. 3 영국의 럭셔리 스포츠카 브랜드 아스텐마틴 최초의 고성능 SUV 'DBX'. 가격은 2억4천만원대부터다. 4 '1백6년의 역사를 지닌' 럭셔리 브랜드답게 고급스러운 내장이 돋보이는 아스텐마틴 DBX의 내부. 5 아우디 최초의 양산형 SUV 전가차인 '아우디 e-트론'.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6 '아메리칸 럭셔리'의 존재감이 묻어 있는 포드 링컨의 럭셔리 SUV 링컨 울 뉴-에비에이터. 리저브, 블랙 레이플, 두 가지 트림이 있으며, 연내 에비에이터 PHEV 그랜드 투어링 모델도 선보일 예정. 7 한화그룹에서 국내 브랜드 첫 럭셔리 SUV로 아침 차게 내놓은 제네시스 GV80. 다들, 가솔린 동종 세 가지 엔진 라인업을 갖추었다. 8 BMW의 4-도어 쿠파형 럭셔리 스포츠카 뉴 M8 그란쿠파 컴퍼티션. 9 콤팩트 카의 매력에 돋보이는 A클래스 라인업 최초의 세단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A클래스 세단'. 10 세단 특유의 인력함, 역동적인 주행 성능, 그리고 맵시 있는 디자인을 두루 갖춘 아우디의 쿠파형 세단 'A7 시리즈'. 11 강렬한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이탈리아 브랜드 마세라티의 한정판 스포츠 세단 모델 '리벨리 라벨레'. 한국 시장에 15대가 배정됐다. *이미지는 각 브랜드 제공.



애호가라면 매력적으로 느낄 법한 '뉴 M8' 시리즈다. BMW는 올 하반기에는 자사의 대표적인 프리미엄 세단 '뉴 5 시리즈 LCi'도 공개할 예정이다. 단순미를 품고 있으면서도 강렬한 디자인 감성을 추구한다면 '조인' 모습을 드러낼 이탈리아 브랜드 마세라티의 한정판 스포츠 세단 모델 '리벨리 라벨레'도 주목할 만하다. '리벨레(Ribelle)'는 이탈리아어로 '반항'이라는 뜻인데, 이를처럼 스포티한 면모를 지닌 기블리 교유의 캐릭터를 더욱 부각하기 위해 외관부터 도전적인 면모를 입혔다. 빨려 들어갈 듯한 물감감을 주는 블랙 컬러와 풀 카본 키트, 강렬한 레드 컬러의 브레이크 캘리퍼가 절로 시선을 집중하게 한다. 내부 역시 마세라티 라인업 최초로 선보이는 최고급 천연 가죽/블랙 투톤 내장이 인상적이다. 이 매력적인 한정판 모델은 한국 시장에 15대가 배정됐다고. 세단의 명성으로 치자면 둘째 가라면 서러울 브랜드 파워를 뽐내는 메르세데스-벤츠는 중소형 모델로 프리미엄 세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중 하나는 지난 2월 발표한 A클래스 라인업 최초의 세단 '더 뉴 A 220 세단'과 '더 뉴 A 250 4MATIC 세단'. A클래스가 기존에는 해치백으로만 나왔던 터라 자동차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뉴 A클래스 세단은 프론트와 리어 오버행이 짧은 스포티한 느낌의 세단으로, 다이내믹한 비율을 자랑할 뿐 아니라 선과 단차를 줄이고 표면을 강조한 디자인을 구현해, 브랜드에서 추구하는 '감각적 순수성(Sensual Purity)'를 완벽히 구현했다고 자평하는 라인업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이와 함께 스포티한 매력과 운전자의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다양한 면면을 품은 라이프스타일 쿠파세단 '뉴 CLA 250 4MATIC 쿠파 세단'도 선보였다. 이 밖에 제네시스는 자사 대표 모델 G80 세단의 3세대 모델인 '신형 G80(The All-new G80)'을 공개했다. '역동적인 우아함(Athletic Elegance)'이라는 제네시스의 디자인 정체성을 제대로 구현했다고 스스로 강조하는 신형 G80이 고급 세단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존재감을 각인시킬 수 있을지 궁금하다. 글 고성연





for Gentlemen
 타미나 아스트 워치™ 1940년대 타미나의 여행용 시계에서 영감을 받은 시계로, 세로가 아닌 가로 방향의 다이얼 디스플레이가 특징이다. 클래식한 동시에 모던한 느낌을 지닌 감각적인 사철의 아라비아숫자 인덱스는 골드 파우더(poudre)를 입힌 것. 케이스 지름은 42x25mm이며 쿼츠 무브먼트를 탑재했다. 4백97만원, 문의 02-547-9488 **몽블랑 스타 레지스 오트메터 다이얼** 브랜드 매뉴팩처 미네르바의 유사 깊은 헤리티지에 뿌리 내린 디자인 코드를 적용한 모델. 몽블랑 스타 패턴을 새겨 넣은 유백색 거요세 다이얼과 3·9·12시 방향에 자리 잡은 아라비아숫자 인덱스, 나뭇잎 모양 핸즈, 월도 모양 마시 트레이 눈길을 끈다. 6시 방향에는 카달란 날짜창이 위치하며 0.7mm의 피렌체 리저먼트 가죽 끈에서 제정찬 그레이 스무티트 레더 스트랩이 어우러져 한층 더 모던하다. 3백59만원, 문의 1670-4810 **롱진 마스터 컴퍼션 시간당 205초** 백회 진동, 64시간의 파워 리저브 기능을 제공하는 셀프와인딩 메카니컬 무브먼트 L899로 구동하는 문페이즈 워치. 6시 방향에는 스몰 핸드를 다룬 문페이즈 창이 위치하며, 이를 둘러싼 띠 형태의 다이얼 디스플레이를 통해 날짜를 읽을 수 있다. 스틸 케이스의 지름은 42mm이며, 케이스 백은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로 처리했다. 3백20만원, 문의 02-310-1597 **카르티에 산토스 듀얼** 지름 43.5x31.4mm 크기의 간결한 정사각형 스틸 케이스에서 클래식한 무브먼트가 보인다. 카본송 컷 블루 스피넬을 세팅한 크라운, 스크루 모티브로 장식한 베젤, 로마숫자 인덱스 등 아이코닉한 디자인 요소를 차용해 메종의 전통을 느낄 수 있도록 한 동시에,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은 효율을 자랑하는 쿼츠 무브먼트를 장착해 실용성까지 겸비했다. 4백60만원대, 문의 1566-7277

this is it

유수의 워치메이커가 선보이는 훌륭한 기능과 디자인, 전문성을 겸비한 시계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부담스러웠다면 지금 소개하는 제품들을 만나볼 것. 신입생, 신입 사원, 시계 입문자, 그 밖에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이들에게 추천하는 착한 시계 리스트.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for Ladies
 오리스 빅 크라운 포인터 데이트 1938년 탄생한 아레 오리스 항공 시계의 역사를 상징하는 모델. 파입렛 글러브를 착용한 상태에서 쉽게 조정할 수 있도록 고안한 오버사이즈 크라운, 아이코닉한 모양의 포인터 데이트, 다이얼 가독성을 높여주는 등 향채의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 등 오리지널 워치 고유의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매력적이다. 브라운 베젤을 장착한 스틸 케이스, 자연스런 텍스처의 브라운 레더 스트랩, 딥 블루 컬러 다이얼이 어우러진 빈티지한 외관 역시 감각적. 1백95만원, 문의 02-757-9866 **해밀턴 재즈마스터 뷰메터 레이디 오토** 오트메터 무브먼트 ETA 2671을 장착해 최대 43시간의 파워 리저브와 50m 방수 기능을 제공한다. 4개의 다이아몬드 인덱스 외에 별도의 장식적 요소를 배제한 간결한 다이얼, 실용성을 보장하는 스틸 케이스 및 브레이슬릿 스트랩을 갖춰 데일리 워치로 제각다, 케이스 지름은 34mm. 1백14만원, 문의 032-320-7559 **미도 비문셀리 워임드 스톤** 그레이 인 효과를 준 화이트 다이얼 중앙에 블루 아반주린 글라스를 세팅해 마치 창을 통해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오트메터 무브먼트 ETA C07.611에 기반을 둔 미도 캘리버 8001 시계에 동력을 공급하며 최대 80시간의 파워 리저브 기능을 지원한다. 1백24만원, 문의 02-3149-9599 **오메가 드 빌 프레스타지 코-엑시얼** 크로노미터 칼라버 2500으로 구동하는 모델로, 기계적 우수성은 물론이거니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유니크한 디자인이 매력적인 디자인이다. 1960년대 컨스텔레이션 모델에서 영감을 얻어 실크 텍스처 패턴을 구현한 유백색 다이얼을 장착했다. 여기에 도금 처리된 입체적인 로마숫자 인덱스와 핸즈를 더해 가독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아함을 부여했고, 6개의 다이아몬드 광채를 더하며 아름다움에 방점을 찍었다. 시간의 신, 크로노스 모양의 메달리언으로 케이스 백을 장식해 더욱 특별하다. 4백만원대, 문의 02-511-5797 **에더터 아메이**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옐로 골드 에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크고 작은 9개의 꽃 모티브로 이루어진 프리블 네크리스 1천7백만원대, 화이트 골드 에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매치한 프리블 밴드 라지 모빌 6백만원대, 옐로 골드 플라워 모티브 37개가 사이 좋게 함께하는 프리블 아이링 9백만원대 모두 **반달리프 아메이**, 문의 1668-1906 **에더터 장미윤**

spring blossom

산들바람에 춤추는 꽃처럼 입체적이고 섬세한 디자인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골드의 매력적인 색채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미러 폴리싱 기법을 사용한 프리블 컬렉션은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반짝이는 깊은 빛을 느낄 수 있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이시영의 패션

brand new attitude

누구보다 열정적인 모습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여성을 위해 탄생한 컨템퍼러리 패션 브랜드 조이그라이슨이 2020 S/S 시즌 한층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온다.

미국을 대표하는 패션 브랜드 코치, 캘빈 클라인, 마크 제이콥스 등에서 가장 기획 총괄 디렉터로 활약한 디자이너 조이 그라이슨. 그녀가 20여년간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2006년 뉴욕에서 설립한 컨템퍼러리 브랜드 조이그라이슨은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을 담은 에센셜한 핸드백으로 큰 사랑을 받아왔다. 특히 국내에선 셀러브리티와 인플루언서의 데일리 룩에 자주 등장하며 다양한 스타일을 아우르는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인지도가 높다.

2020 S/S 시즌 조이그라이슨은 멕시코 출신 화가이자 동시대의 가장 아티스틱한 아티스트 중 한 명인 프리다 칼로를 조명했다. 영화 같은 그녀의 인생은 여성, 사랑, 예술의 가치와 함께 근본적인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이에 착안해 브랜드는 'Self Confidence'라는 시즌 테마를 설정, 진취적이고 아티스틱한 삶을 추구하는 여성상을 제안하며 가장 자신다운 삶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 더불어 프리다 칼로의 이국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작품 세계를 브랜드 특유의 모던하고 클래식한 언어로 재해석해 현대적인 디자인의 핸드백 컬렉션으로 탄생시켰다. 그중에서도 시그너처 모델인 나옴이 백과 박스 셰이프의 클레어 리스 크로스 보디 백을 눈에여겨볼 것. 뉴욕의 워킹 우먼에 대한 오마주로 탄생한 나옴이 백은 데이 & 나잇, 워크 & 워렌드를 구별하지 않고 라이프 스타일 전반을 아우르는 모델이다. 여러 겹의 정교한 스티치 디테일, 엠보싱 처리한 입체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데, 특별히 골드 브라스 하드 웨어를 더해 빈티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감성을 표현했다. 간결하고 기하학적인 실루엣이 특징인 클레어 리스 크로스 보디 백은 프리다 칼로의 페인팅을 차용한 컬러감이 특징이다. 그녀의 고향인 멕시코 코요아킨의 빛바랜 듯한 이국적 풍경에서 영감을 얻어 아이보리, 캐밀, 두 가지 컬러로 선보인다. 두 모델 모두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JTBC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에서 주체적인 여성상의 '조이서' 역할로 분한 배우 김다미가 착용해 큰 인기를 얻기도 했다.

한편 2014년 한국에 처음 론칭한 조이그라이슨은 신세계 스타필드 강남점 2층 플래그십 스토어를 포함해 국내에 총 25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해왔는데, 브랜드의 성장세에 힘입어 최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신관 5층에 26번째 매장을 오픈했다. 테라조, 대리석, 금속 등 고급스러운 소재를 사용한 모던한 공간에 구조적이고 미니멀한 가구와 오브제를 더해 조이그라이슨의 감성을 곳곳에 구현했다. 브랜드의 시그너처 백 나옴이를 중심으로 한 2020 S/S 시즌 신제품을 직접 만지고 들어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오픈 기념 특별 프로모션도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2150-2494 에디터 **이혜미**

● sponsored by JOYERSON



1, 2 조이그라이슨 2020 S/S 캠페인 이미지, 3, 4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신관 5층에 오픈한 조이그라이슨 매장사인 강판물, 5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에서 클레어 리스 크로스 보디 백을 착용한 김다미, 6 크로코 엠보싱 처리한 나옴이 컬러 카우 레더 소재 클레어 리스 크로스 보디 백.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타사키 쉘 파라다이스 링** 소개영상에서 영감을 받은 컬렉션으로 플라네트의 한 종류인 파라다이스 과 당수 진주를 매치해 구조적이고 실용적이며 중성적인 매력을 살렸다. 2백50만원대, 문의 02-3461-5558 **에르메스 인티모쉬 컬렉션 링** 에르메스의 아이코닉한 7개의 라인 브라이드 드 칼라 패턴을 스톤에 새긴 링, 실크로에서 발견한 고대 그리스 도시, 인티모쉬에서 영감을 받았다. 핑크 골드에 핑크 칼세데나 스톤, 그리고 다이아몬드를 매치했다. 5백만원대, 문의 02-542-6622 **불가티 세라핀티 바 이퍼** 칼라와 소재의 대비로 빛의 관능미와 강렬함을 더욱 극대화했다. 로즈·화이트·옐로 골드, 그리고 블랙 로퐁 소재의 싱글 아카프 1백만원대, 문의 02-2056-0170 **사벨 화인 주얼리 코코 크리쉬 링** 광택 모터브의 18K 화이트 골드와 옐로 골드, 그리고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버전을 하나로 연결한 코코 크리쉬 링 가격 미정. 문의 090-200-2700 **타파니 타파니 1837 베이커스 와이 드 체인 브레이슬릿** 타파니의 할로웨이 공방과 스포츠 트로피 제작 과정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컬렉션. 오묘하고 불룩한 형태, 남작한 모사블로 모티브로 표현했으며 T & CO MAKERS, NY, 'AG925' 등의 심볼로 장식했다. 스틸링 실버와 18K 옐로 골드를 매치한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문의 02-547-9488 **부채본 라프로 레지던트 에디션 다이아몬드 오픈워치 링** 클루 드 파리에 대한 상상한 골드 오픈워치 세공과 33개의 다이아몬드 라인, 그 위의 그로그링 모터브가 한데 어우러져 다채롭다. 대조의 미학을 살린 링 8백만원대, 문의 02-772-3508 **타사키 쉘 파라다이스 네크리스**를 라스한 진주 목걸이의 전통적인 면모에서 벗어나 현대적의미를 부여한 모던한 네크리스 4백40만원대, **피아제 선데이 트 아이링** 태평양 피아제 메종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 중 하나, 물에 반사되는 햇빛의 반짝임을 연상시키는 18K 핑크 골드의 둥근 보드에 90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1천만원대, 문의 02-540-2297 에디터 **장미윤**



day by day

하나만 착용해도 존재감이 확실한,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무장한 데일리 주얼리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STORE OPENING EVENT

<스타일 조션일보>와 함께하는 조이그라이슨의 특별한 프로모션 이벤트

이 쿠폰을 소지하고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조이그라이슨 스토어를 방문한 고객께 정상 제품 2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 진행 기간 2020. 4. 1(수)~26(일) ◆ 문의 02-2150-2494 ◆ 진행 매장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신관 5층 조이그라이슨 매장 ※ 타 프로모션과 중복 불가합니다.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1. 캠페인 이미지, 2.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신관 5층에 오픈한 조이그라이슨 매장사인 강판물, 3.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에서 클레어 리스 크로스 보디 백을 착용한 김다미, 4. 크로코 엠보싱 처리한 나옴이 컬러 카우 레더 소재 클레어 리스 크로스 보디 백, 5. 캠페인 이미지, 6.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신관 5층에 오픈한 조이그라이슨 매장사인 강판물

2020 S/S Trend Report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젠더리스가 트렌드의 중심에 있었다. 마초와 서정을 넘나들며 다양한 스타일을 취했고, 신경 쓰지 않은 듯 여유로운 테일러링이 두각을 드러냈다. 그리고 스트리트적 요소가 하이패션 신을 젊은 에너지로 채웠다. 남성을 위한 2020 S/S 트렌드 8.

trend 1. Elegance Tailoring

블라바를 타고 로맨티시즘이 찾아왔다. 디자이너들은 성 고정관념을 뛰어넘되, 남성 고유의 매력에 드러나도록 '중도적 젠더리스'를 선택했고, 그 결과 로맨틱 무드가 일선에 등장한 것이다. 그리고 실용적이고 세련된 방식으로 여성성을 차용하기 위해 파스텔컬러와 새틴 소재라는 만능 카드를 사용했다. 발맹, 벨루티, 디올 맨, 프라다, 랑방, 루이 비통 등 셀 수 없이 많은 브랜드가 아이스크림을 연상시키는 로즈·민트·레몬 옐로 컬러 슈트와 은은한 빛을 내는 새틴 소재의 오버사이즈 코트, 팬츠 등을 선보이며 부드럽고 유연한 태도를 지닌 남성을 찬양한다.

trend 2. Marine Boy

이번 시즌 영감의 선택지는 바다였다. 프라다, 랑방, 로에베 등이 낙낙한 실루엣의 세일러 룩, 노티컬 스트라이프, 해군 모자, 바다의 푸르름 등 머린 보이의 아름다움을 컬렉션에 올렸다. 해군 병사들이 입는 제복에서 힌트를 얻은 요소는 바다 너머 세상을 동경하는 순수한 소년의 이미지를 담아내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그중 랑방의 컬렉션은 바다의 모든 것을 담았다. 가죽 소재 세일러 칼라를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했고, 고래와 파도 프린트, 윈드브레이크 재킷과 해군 점퍼 등으로 바다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trend 3. Artistic Touch

올봄 손으로 쓱 칠하고 물감을 흘뜨려 뿌린 추상적인 패턴, 홀치기 효과, 얼룩덜룩한 워싱 등이 남성 옷차림에 예술적 자유를 선사했다.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벼운 무게의 거리가 멀다. 대중 우연의 효과를 노린 듯 자유분방한 무늬는 정교한 테일러링, 고급스러운 소재와 만나 하이패션으로 거듭났다. 디자이너들은 데님, 실크, 가죽 위에 아티스틱한 기법을 깔끔하고 세련되게 표현했는데, 카무플라주 패턴을 마치 추상화처럼 표현한 로샤스, 물감이 은은하게 번진 것 같은 슈트를 선보인 에르메네제일도 제냐가 대표적인 예.

Elegance Tailoring - BALMAIN

Elegance Tailoring - LOUIS VUITTON

Artistic Touch - HERMÈNE GILDO ZEGNA

Artistic Touch - BURBERRY

Long Enough - LOEWE

Marine Boy - LANVIN

Long Enough - JIL SANDER

Marine Boy - HERMÈS

Double Denim - BOTTEGA VENETA

Double Denim - CELINE

trend 4. Coords

'코디네이트(coordinate)'에서 파생된, 아래위를 세트로 맞춰 입는 스타일을 뜻하는 'coords', 이 단어가 익숙해져야 할 것이다. 한동안 셔츠와 쇼츠의 패어링이 유행할 것이기 때문. 디자이너들은 실크와 가죽 등 다양한 소재의 쇼츠 세트를 선보였으나, 짝 맞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니 이왕이면 대범한 프린트를 택하는 것이 이득이다. MSGM, 디올 맨, 베르사체 등의 컬렉션을 참고할 것. 여름 느낌 물씬 풍기는 이그조틱 모티프, 페이스리, 플라워 프린트 등은 도심에서는 물론 해변에서도 인기 좋다.

trend 5. Long Enough

셔츠가 길어졌다. 튜닉이라 해야 할까? 길고 가는 실루엣의 톱과 니트, 셔츠가 루이 비통, 펜디, 로에베, 라프 시몬스 등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주요 브랜드의 컬렉션에 대거 등장했다. 현대 남성복 실루엣에 대한 고정관념을 뒤흔들며 성의 경계를 오가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남성성을 잃은 것은 아니다. 생각해보라. 동양의 전통 의상들을! 로에베가 선보인 스웨이드 소재 셔츠는 터키의 카프탄을, 루이 비통의 플라워 프린트 실크 셔츠는 중국의 차파오를 연상시킨다. 이국으로 향하는 시간 여행자의 모습이 이렇할지도.

trend 6. My Sexy Lover

늑대적 남자가 나타났다. 이번 시즌 방탕하지만 거부하기 힘든 치명적 매력을 지닌 남자들이 런웨이에 가득했다. 드리스 반 노튼은 플로럴과 애니멀 프린트를 날카로운 테일러링에 더해 남성의 섹시함을 부각했고, 생로랑은 매끈하고 슬림한 슈트를 입은 1970년대 빅 제기의 분신들을 불러들였다. 룩스타의 피가 흐르는 방탕아들 덕분에 실크 셔츠와 흰색 탱크 톱, 데님의 매치, 메시, 오간자 등의 시스루 소재가 유행할 전망이다. 더불어 디자이너들은 한복 소리로 셔츠 단추를 풀어헤쳐 강력한 페로몬을 발산하라 권한다.

trend 7. Double Denim

"뭉고 더블로가" 이 유행어가 딱 맞아떨어지는 트렌드가 여기 있다. 바로 '청정 패션'. 밀라노와 파리의 다수 브랜드들은 자칫 무리수일 수 있는 더블 데님을 쿨하게 바꾸어놓았다. 로에베는 박시한 데님 슈트를 선보였는데, 색이 살짝 바랜 워싱 데님이 산뜻함을 전한다. 셀린노는 1970년대 뱀보틴 진과 워싱 데님 재킷으로 반항적인 레트로 데님 스타일링을 선보였고, 발렌티노는 클래식한 데님 재킷에 동일한 소재의 셔츠와 팬츠를 매치해 데님 셋업 스타일의 정석을 보여주었다.

trend 8. More Pockets

이번 시즌엔 지갑보단 주머니에 공을 들여야겠다. 루이 비통의 버질 아블로가 시작한 주머니를 향한 사랑이 2020년 S/S 시즌에는 모든 디자이너에게 전해졌다. 버질 아블로의 영향으로 이미 길거리엔 주머니가 여러 개 달린 재킷이나 베스트를 입은 '협한 젊은이들'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이번 시즌은 보다 노련하고 세련된 남성들에게서도 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듯하다. 펜디, 토즈, 루이 비통은 스웨이드, 가죽, 자카드 등 고급스러운 소재의 재킷에도 아웃 포켓을 여러 개 장착했다. 스포티브와 포털을 오가는 하이브리드 스타일을 완성하는 데엔 포켓의 공이 크다. 객원 에디터 남지현

My Sexy Lover - GIVENCHY

More Pockets - FENDI

More Pockets - TO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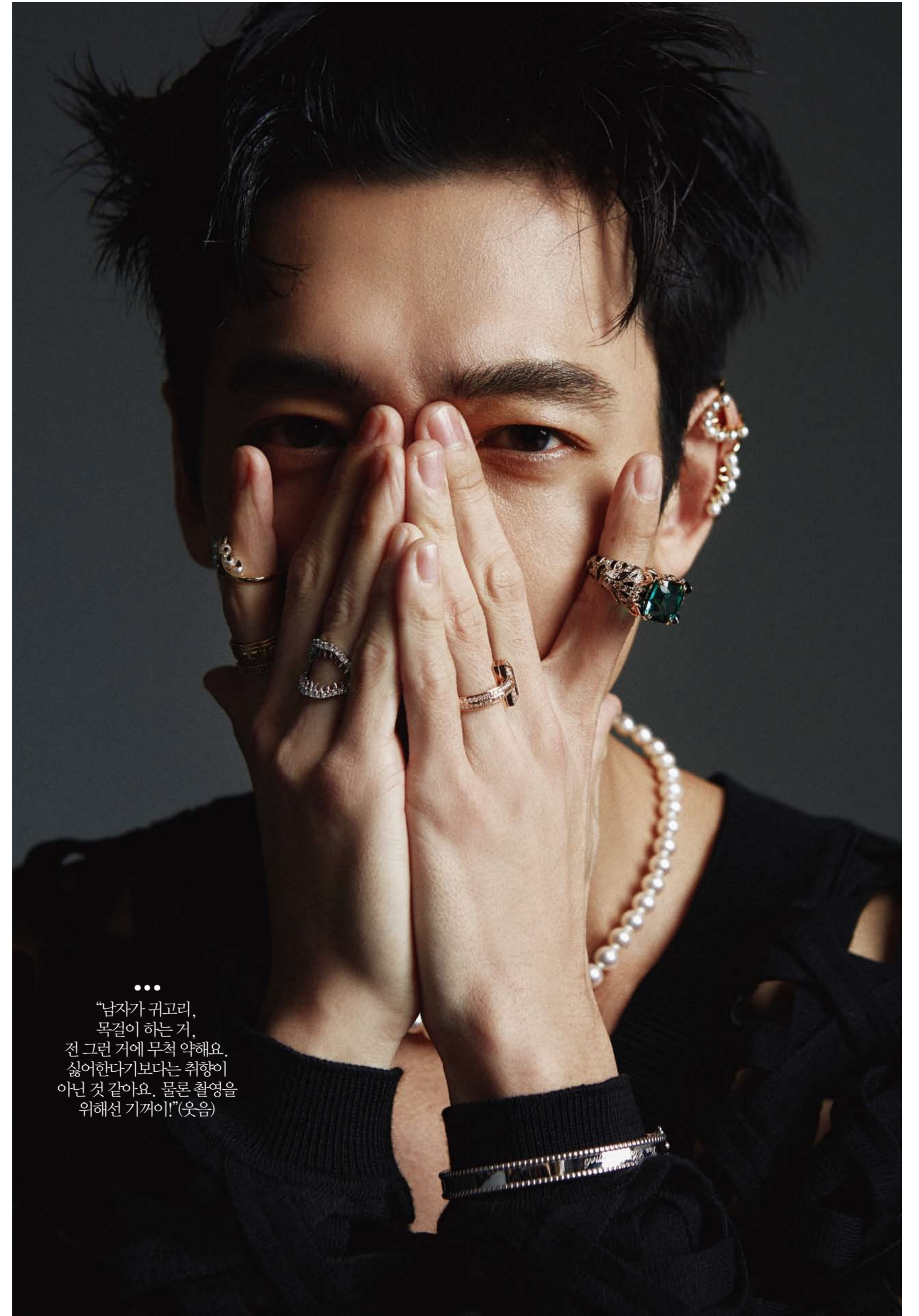
My Sexy Lover - SAINT LAURENT

Eternal Cool

깊은 눈빛과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
'슬기로운'을 평범의 척으로 정의한
단단한 배우 정경호의 패션 토크.
photographed by lee sang hun



블랙 티셔도 슈트 브룩스 브라더스,
이카카프 알렉산더 맥퀸,
체인 네크리스, 고딕풍 반지
모두 다올 맨, 선글라스 켈들몬스터,
스니커즈 지미후.



...
“남자가 귀고리,
목걸이 하는 거,
전 그런 거에 무척 약해요.
싫어한다기보다는 취향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촬영을
위해선 기꺼이!”(웃음)

폴오버 맨디, 대인저 아이카프, 대인저 스키피온 아이카프 모두 타사키, 오른손 검지에 착용한 대인저 링 타사키, 괴르토 레디안트 옐로 골드 라지 링 부세몬, 오른손 약지에 착용한 화이트 골드 걸머 링 타사키,
왼손 약지에 착용한 티파니 T1 화이트 풀 다이아몬드 링 티파니, 왼손 검지에 착용한 파치 레오나드 캣 링 부세몬, 베를리 시그니처 화이트 골드 브레이슬릿 빈델리프 아펠, 아코아 진주 네크리스 타사키.

블랙 레더 재킷
올서인츠, 화이트
티셔츠와 데님 팬츠
모두 골든구스.



“아끼는 패션 아이템을
이용한, 멋 부렸는데 아닌 것
같은 스타일이 좋아요.
청바지에 가죽 재킷 입은 것.
그게 딱 저였어요.”

리온드 넥 스웨터, 몽클레르
3 그레노블, 화이트 셔츠,
코트 팬츠 모두 발렌타노.



“니트를 참 좋아해요.
디자인이 같아도 패턴이나
실 색깔, 단추 같은 디테일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또 구매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왜 같은 걸
자꾸 사느냐고 묻지만요.”

...
 “정말 오랜만에 다양한 옷을
 입어본 것 같아요. 즐거웠어요.
 어릴 땐 정말 옷을 좋아했죠.
 지금은 제 스타일을 찾았다고
 해야 하나? 편한 옷에만
 손이 가는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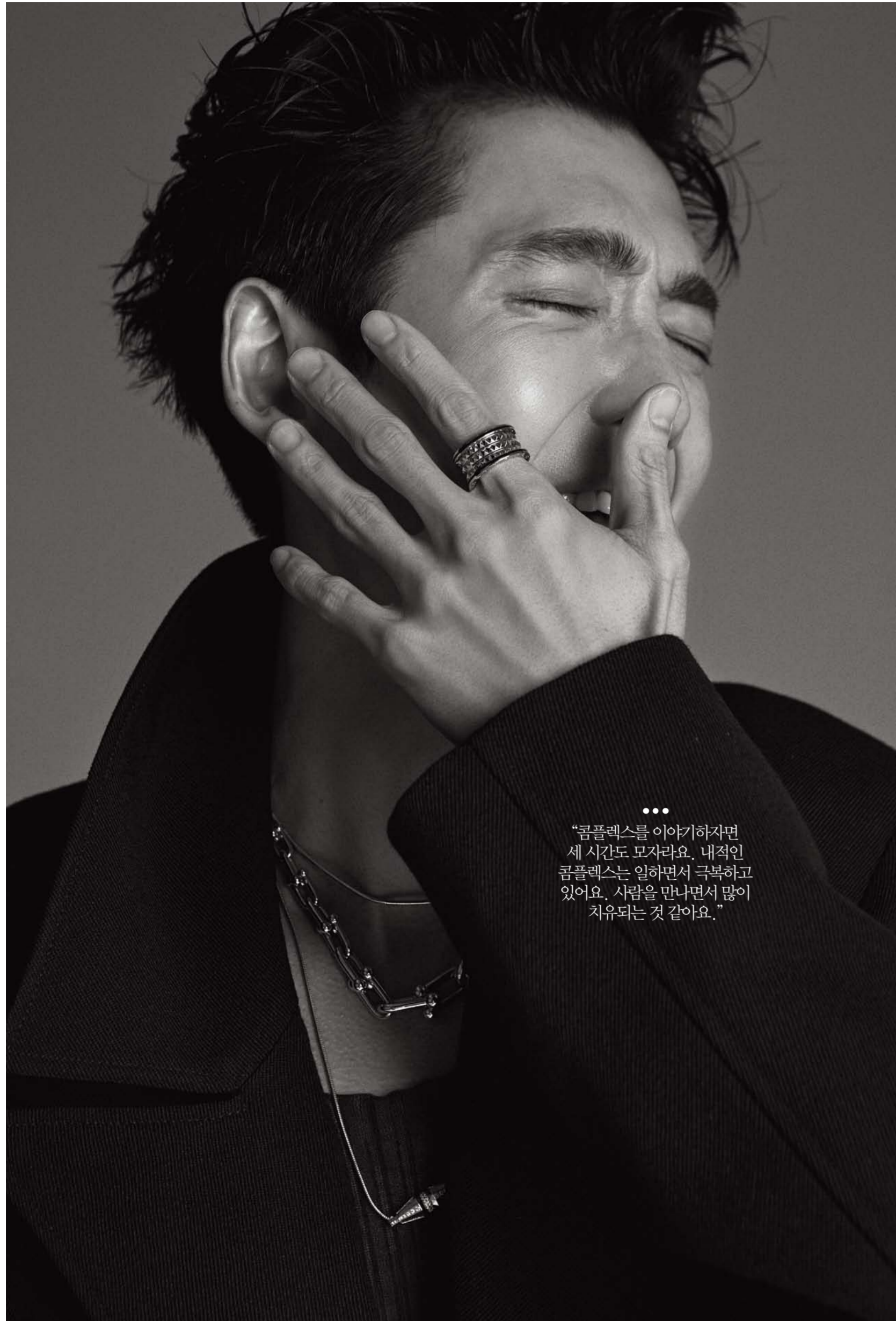


화이트 데님 재킷, 셔츠, 팬츠
 모두 프라다, 스톤 아일랜드
 알렉산더 맥퀸, 실버 핀트리 아이커프
 우영이, 페드락 펜던트 네크리스
 디올 맨, 선글라스, 안경줄
 모두 켈들몬스터, 스웨이드 디테일
 스니커즈 차처스.

...
 “좋아하는 컬러는
 블루와 블랙이에요. 털어내고 생략한
 느낌을 좋아하는 미니멀리스트죠.
 평소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지금
 이 옷은 연기할 때 다시 한번
 입어보고 싶네요.”



인크 프린트 재킷, 셔츠,
 팬츠 모두 알렉산더 맥퀸,
 화이트 스니커즈 자황시.



...

“콤플렉스를 이야기하자면 세 시간도 모자라요. 내적인 콤플렉스는 일하면서 극복하고 있어요. 사람을 만나면서 많이 치유되는 것 같아요.”

롱 오버코트, 니트 톱 모두 보태가 베네타, 비제르원락 밴드 링 불가리, 잭 6-캡 다이아몬드 네크리스 부쉐론, 하드웨어 링크 그라데이션이티드 네크리스 티파니.



...

“슬기로운 생활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솔직히 재미는 없어요. (웃음) 슬기롭다는 건 평범한 거 아닐까요?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클로럴 프린트 스웨터, 블랙 팬츠 모두 지형시.

헤어 이메뉴
메이크업 오기영
어시스턴트 조소희
컨트리아루팅 에디터 심우한
에디터 장라윤, 이주이

브룩스 브라더스 02-2062-8822
압력산더 맥킨 02-6905-3472
다음 맨 02-3480-0104
전통문스터 1600-2126
보태가 베네타 02-3438-7682
지미후 02-3438-6107
팬디 02-2066-9023
타사키 02-3461-5558
티파니 02-547-9488
부쉐론 02-6905-3322
반클리프 아펠 1688-1906
올세인트 080-801-7070
골든구스 02-6905-3693
몽클레르 02-514-0900
발렌티노 02-2051-4653
프라다 02-3218-5331
차우시 02-3479-1140
우영미 02-515-8897
지형시 02-546-2790
불가리 02-2056-0170

IWC PORTUGIESE. THE LEGEND AMONG ICONS.



— **Portugieser Perpetual Calendar.**
Ref. 5033: 포르투갈 선원들의 대담한 탐험은 영원한 영광을 약속했으며, 그 영웅적인 시대가 남긴 가치 있는 유산이 바로 포르투기저 퍼페추얼 캘린더입니다. 이 제품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우아한 디자인과 함께, 펠라톤

와인딩 시스템과 7일의 파워리저브를 갖춘 오토매틱 무브먼트, 그리고 2499년까지 세팅되어 있는 날짜 디스플레이가 포함된 선구적인 기술력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 위대한 타임 피스는 그 전설적인 지위를 영원토록 유지할 것입니다.
IWC. ENGINEERING DREAMS. SINCE 1868.

고객님의 국제 품질 보증 기간을
2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세요.
IWC.COM/MYIWC 에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Mechanical movement · Pellaton automatic winding system · IWC-manufactured 52610 calibre · 7-day power reserve with display · Perpetual calendar with displays for the date, day, month, year in four digits and perpetual Moon Phase · Anti-reflective sapphire-glass · See-through sapphire-glass back · Water-resistant 3 bar · Diameter 44.2 mm · Alligator leather strap by Santoni

갤러리아 EAST · 롯데 에비뉴엘 본점 · 롯데 에비뉴엘 월드타워 · 신세계 영등포 · 대구 신세계 · 현대 본점 · 현대 무역센터 · 현대 판교
대표전화 +82 2 3440 5876 WWW.IWC.COM/KO

IWC
SCHAFFHAUSEN